“광주형일자리·AI허브…새로운 광주 토대 다졌다”

민선 7기 이용섭號 15대 핵심성과·100대 주요 성과 내용

민선 7기 이용섭號는 출범 이후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성과만 해도 100가지가 넘게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한 토대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를 디딤돌 삼아 2020년을 ‘인공지능(AI) 허브’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뤄낸 대표적인 15대 핵심 성과와 100대 주요 성과를 간추린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민선7기 1년6개월 성과 결산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광주시는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아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경제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절실한 심정으로 노력한 끝에 지난 1월 31일 현대자동차와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 9월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에 이어 오는 26일에는 자동차 공장 착공식을 갖는다. 23년 만에 국내에 새로운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다.

▲AI강국 뒷받침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정부는 ‘AI강국’ 비전달성을 위해 지난 17일 광주 AI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포함된 ‘AI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AI Hub City, Gwangju) 프로젝트는 혁신시정의 대표적인 성과다.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개발 사업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국가사업으로 확정했다. 이후 광주는 내년 인공지능 국비예산 626억원 확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 출범, 미국 실리콘밸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한민국 AI클러스터 포럼 발족,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 석박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설립, 인공지능 사관학교 업무협약 체결,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들어설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 광주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회 역사상 가장 성공한 2019광주세계수영대회=FINA(국제수영연맹)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0억9천만명이 대회를 시청했고, 국내외 SNS를 통해 7억회 이상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1개국에서 1만2천800명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했고, 최고 수준의 경기장·선수촌·경기운영을 통해 많은 신기록을 생산했다. 특히 3천여 자원봉사자와 1만2천여명의 시민서포터즈, 150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친절서비스로 국제수영연맹과 각국 선수단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 대회 성공을 발판삼아 후속 유산사업으로 한국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하고, 광주수영선수권대회를 매년 개최한다.

▲도시철도2호선 착공 등 해묵은 현안 속속 해결=지난 16년 간 건설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가 분열하고 갈등했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지난해 11월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을 확정짓고 지난 9월 기공식을 가졌다. 13년 간 표류해 온 광주문학관 건립 부지를 북구 시화마을로 확정했으며,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10년 간 공들여 온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광주 역사상 첫 국비 2조5천억원 시대 개막=지난해 2019년 국비예산을 2조2천102억원 확보해 최초로 2조원의 국비시대를 개막한 데 이어 올해도 기록을 경신했다. 2020년 정부 총예산이 전년대비 9.1% 증가한 반면, 국비예산은 2조5천379억원으로 14.8% 증가했다. 이 중 신규사업은 총 94건으로 전년대비 24건 늘어났으며 금액 또한 1천130억원이 증가한 1천968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내최초, 국내최대 등 68개 중요 국책사업 유치=국내 유일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를 유치했고, 산업부 지역활력프로젝트에 광주 친환경공기산업이 선정돼 한국공기산업진흥회 사무국이 광주에 터를 잡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국내 1호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 준공, 국립트라우마센터 유치, 전국 최초로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가 개관하는 등 미래 산업 지도가 광주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레독스흐름전지 인증센터와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전기분야 세계 3대 연구원인 한국전기연구원의 광주분원도 착공해 내년 6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국 최초로 광주가 전남과 함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돼 에너지산업 메카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됐다.

▲‘광주다움’을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가장 광주다운 것이 가장 경쟁력 있다. 예향 광주의 전통문화예술을 광주만의 볼거리로 만든 ‘국악상설공연’은 지난 3월 시작 이후 12월 기준 1만6천여명이 찾아 대표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 주먹밥 등 미향 광주의 명성을 알릴 광주의 7대 대표음식을 시민들과 함께 선정했다. 충효동 일대를 무등산, 호수생태원, 가사문학권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친환경 생태문화마을 단지로 조성 중이다. 문화전당 배후 주거지인 동명동 일원을 광주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담은 체험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한 광주 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용역에도 착수했다.

▲의향 광주 계승·발전작업 속도=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전국 최초로 광주 친일 잔재물 조사와 단죄문 설치를 통해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고 있으며, 사라졌던 안중근 의사 숭모비를 되찾아 재건립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간직한 그날의 아픔과 항쟁의 의지를 오롯이 지켜내기 위해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도 구성했으며, 민주인권기념파크를 국가사업으로 조성한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광주’ 만들기 앞장=광주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결혼·출산·육아·보육 단계별로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하고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를 실시해 부모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 공기청정기 4천736대를 설치했다. 또한 폭염과 혹한에 대비하기 위해 903개소의 어린이집에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하고 안심 보육환경에도 힘쓰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해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자체 지원하고 있다.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1천개 이상 발굴해 제공했다. 또한 장애인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자립지원금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했다. 노후 걱정 없는 이모작 인생 지원을 위해 장년층 일자리 빛고을50+ 사업을 시행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치매예방 및 노화방지 특화형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광주상생카드 등 차별화된 정책 추진=전국 최초로 가맹점 가입 필요 없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제외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는 출시 9개월 만에 발행액 827억원을 돌파,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490억원 규모의 골목상권 특례 보증을 실시해 2천5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 제도를 통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총 1만4천회 이상 직접 방문해 지원 안내 및 신청을 도왔다.

▲대통령도 인정한 가장 안전한 도시 자리매김=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지역안전지수에서 화재·감염병 1등급 판정을 받는 등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혔다. 범시민 재난안전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교통사고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3·3·3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한 결과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최초 5G기반 스마트재난관리 플랫폼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도 혁신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폭염대비시설 확충 등 생활 밀착형 안전복지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등 현안 해결·주요 국책사업 68건 유치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함’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 주목
골목상권 활성화·현장중심 소통·가장 안전한 도시 자리매김

▲백문 불여일견(百聞 不如一見), 현장중심 소통=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장 경청의 날’을 13차례 진행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을 찾아가는 ‘민생경제현장 정책투어’를 15차례 추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시민소통 창구인 시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켜 시민 정책제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권익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설치=희망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었다. 각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이 연초에 성과창출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연말에 평가해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는 혁신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2019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처음으로 실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공공성 강화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각 기관에 대해 조직진단을 추진했다. /김종민 기자

일자리·복지 안전·혁신… 무려 93개 상복 터졌네

李시장“쉼없이 달려온 1년6개월 성적표”

혁신과 소통을 기반으로 매일매일 광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광주시가 지난 1년 6개월 간 일자리경제(15개)·복지보건(15개)·문화도시 환경(12개)·재난안전(26개)·혁신소통(25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인정받아 의미 있는 93개(일반적인 고마움의 표시인 감사패 등을 제외)의 영예로운 상을 수상했다.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기여한 공로로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총 15건의 상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지자체 장 최초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수여하는 ‘목민상’이다. 특히, 일자리시장을 표방한 ‘이용섭호’답게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성과 등이 높이 평가돼 ‘2019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획득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일자리혁신을 일으킨 공로로 ‘2019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도 수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서 풍요로운 광주를 이끌어 갈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아 행정안전부 후원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거머쥐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주관 ‘2018 지역복지사업 평가’ 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대상을 포함해 2019상반기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심사 전국 1위 등 복지·보건 분야에서도 모두 15건의 상을 수상했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 지방정부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했던 이용섭 시장의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한 성과는 재난안전과 교통 분야의 우수한 수상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1위 달성은 적극행정과 협업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2018 감염병 관리와 재난상황관리 등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건설에 기여한 공로로 재난안전분야에서 총 26건의 상을 받았다.

강도 높은 소통과 혁신을 추진한 결과 2018올해의 SNS블로그 대상, 제12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 대상, 2019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등 혁신소통분야에서 25건의 수상실적을 거뒀다.

특히, 백미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공무원 1천400여명이 투표한 결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광역부문 ‘2019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이용섭 시장이 선정된 것이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결정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사)한국정책학회 주관 ‘제7회 한국정책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용섭 시장은 “93개의 수상은 직원부터 시장까지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시민만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 6개월의 성적표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혁신하고 소통해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어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말했다.